

특별리포트

# 군민과 동행 부안군의회 '호평'

### 제7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군정질문 110건, 5분 자유발언 7건 등

부안군의회(의장단 의장 임기태, 부의장 김병효, 의회운영위원장 박병래, 자치행정위원장 문찬기, 산업건설위원장 이한수)는 지난 2014년 7월 개원한 제7대 부안 군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 됐다.

제7대 부안 군의회는 이 기간 동안 각종 정례회와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군민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부안 군의회 임기태 의장을 비롯한 김병효, 박병래, 문찬기, 이한수, 오세웅, 장은아, 김형대, 홍춘기, 박천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지난 17일 제273회 임시회까지 총 241일의 회기 동안 315건(조례 168건, 규칙 8건, 예산안/결의안 각각 15건, 동의안 16건, 심의안 27건, 기타 66건)의 안건을 심의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하려고 노력했다.

개원 이후 2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8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집행부의 잘못된 시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의 288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

군정질문 110건, 5분 자유발언 7건 등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했다.

군민과의 소통 강화 등을 위해 관내 127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토록 주문했다.

부안 군의회 임기태 의장은 "지난 2년 간의 전반기 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출발해 군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통해 '군민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부안 군의회 임기태 의장은 "지난 2년 간의 전반기 의회는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출발해 군민의 뜻을 정확히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통해 '군민과 호흡하고 동행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읍시공무원-농민단체 간담회

정읍시공무원과 농민단체들 임원들이 지난 27일 간담회를 가졌다.

정읍시 농민단체연합회(회장 김봉환, 21개 단체)가 마련한 이날 간담회는 공무원과 농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농업 발전 방향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성기 시장과 농업 관련 공무원 담당급 이상 70여명이 참석했고, 농민단체 임원들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기 시장은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농민단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FTA 등 농업현실을 직시하고 정읍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봉환 농민단체연합회 회장은 "행정과 농업인이 하나 되어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며 "특히 고생스럽고 힘들더라도 공무원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제농기센터 친환경 채소단지 육성

김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에서 2015년부터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친환경 학교급식 채소단지 육성 사업'이 친환경 안전 먹거리 생산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 및 학교급식용 친환경 채소류 안정 생산 체계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 채소단지 육성 사업'은 2년 총사업비 6억으로 금년에는 8,200㎡(26동)의 시설하우스를 지어 친환경 급식 채소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생리장비 및 친환경자재를 구입하여 시설하우스 작물의 병해충 친환경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28일 실시한 영농 수확 체험은 친환경 안전 먹거리 소비 촉진과 친환경 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도내 어린이집원생 및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 관련자 등 61명을 대상으로 김제 친환경 채소 작물반 포장인 봉남면 최원희 농가에서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는 체험으로 이루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금산면 주민자치위원회 53개마을 경로당 등 양파지원

김제시 금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고상현)는 지난 27일 2016년 지역특색사업으로 직접 재배한 양파를 마을 어르신들이 주로 생활하는 경로당에 2량씩 지원, 따뜻한 이웃사랑의 불씨를 지켰다.

이날 전달된 양파는 금산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 2월~6월까지 직접 따올리며 재배한 양파로, 관내 경로당 53개소 및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어려운 이웃 3세대를 선정하여 양파2량씩(총 110량) 전달되었다.

양파를 재배하는데 참여한 고 위원장은 "무더위속에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어르신들에게 자그마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들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철 금산면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상반기 길보존종합사회복지관의 15개소 9개사업에 대하여 6월까지 지원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김제시, 지역서비스투자사업 90% 만족

### 수혜 대상자 조사결과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상반기 길보존종합사회복지관의 15개소 9개사업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지원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수요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한중교류촉진 '부안중국문화원' 개원

### 중국어문화기획전시·체험 군민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이 '영원한 이웃' 중국과 교류 활성화를 활성화를 하려고 한중문화 교류 특화공간조성에 집중하기 위해 부안중국문화원이 부안문화의 전당 내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28일 개원식에 김중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주광주중국총영사관 손현우 총영사와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 원광대학교 공자학원, 전주교회협회, 군산화교협회 석도 국제항운유한공사 등 중국과 함께 하는 90여 분들이 축하했다.

개원식은 태극선·범검·몽골민속춤 등 우석대 공자아카데미의 중국전통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선언, 기념사, 축사, 현판식, 부안중국문화원 전시실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비즈니스 제공을 통해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수요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바우처 사업의 현장점검은 주로 이상결제 내역중 허위·부정결제여부확인 등 결제원칙위반여부 및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이용자관리, 서비스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현제 김제시는 830여명 정도의 대상

자가 서비스혜택을 받고 있고 90여명이 제공기관인력으로 일자리를 얻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 대부분의 수혜자가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 (만족률 90%이상)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높은 복지 수요 충족과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하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기관 관리 및 복지부·도와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김제시 도시재생·유통식품과 직원들 과수원 일손 돕기 나서

김제시(시장 이진식)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28일 도시재생과 및 유통식품과 직원 20여명이 죽산면 옥성리 소재 배 농가를 찾아 과수원 주변 제조작업 및 울타리 보수작업 등의 일손돕기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일손돕기는 최근 무더위와 농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일손을 지원받은 농가는 "농번기 일손이 부족해 배 과수원 주변 정리를 못해 걱정하던 중 공무원들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손을 지원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시생활개선협의회원 80여명 신정동 첨단과학 연구단지 견학

정읍시는 28일 정읍시생활개선협의회(회장 김순아) 회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신정동 첨단과학연구단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회원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 본부와 이와 연계해 조성된 첨단과학 연구단지를 둘러봤다.

김순아 회장은 "신정동에 연구단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 대담한 시설과 규모인지는 상상도 못했다"며 "연구기관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많은 기업들이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해 시민들의 삶을 높이고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읍과 전북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3대 국제연구소와 이들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기술이전 기업들이 지속 입주하고 있는 첨단과학산업단지 일대를 직접 둘러보고 체험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취지로 현장학습을 운영 중이다.

시에 따르면 신정동에는 3개 국제연구

소, 500여명의 연구인력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부설연구소(20개동) 건립과 대형 연구과제(5개) 선정 등 지속적인 R&D인프라 구축을 통해 제2의 대박밸리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국가에서 R&D지원을 받을수 있는 전북연구개발 특구로(2015. 7. 13) 지정된 이후 국내·외 유망 중소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 상반기 전기안전공사 등 5개 연구기관과 7개 기업들이 입주체결을 하고 건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첨단과학연구단지는 세계적인 연구인프라(RT, RFT, B T, MFT 등)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다 기업입주도 지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20년 이후에는 인구 2~3만명의 미니 자족도시로 성장하여 정읍시 인구 15만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현장학습 참여와 관련,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학생과 시민 등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첨단과학산업과(☎063.539-5652) 및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김제시, 시정모니터 요원 위촉·간담회

김제시는 28일 2016년도 김제시 시정모니터 제4기 33명에 대한 위촉식과 활동요령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시정모니터는 행정 수행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개선사항이나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변 시민들의 반응과 의견 등을 모니터링하여 시에 제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현재 김제시 모니터 요원은 2013년 도부터 위촉된 67명과 이번호 33명을 새로 위촉하여 100명으로 확대되어 모니터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위촉한 모니터 요원은 향후 2년 동안 활동을 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모범 및 깨진맛값 음식점 운영상황 점검, 김제시 홈페이지 개선 의견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기도 하였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2013년부터 위촉된 시정모니터 요원이 100명으로 크게 확대됨으로써 시정모니터를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과 목소리를 시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재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확보 및 지적정착, 지방선축제 4년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등 시의 주요 성과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활동해 달라"며 시정모니터의 왕성한 활동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병원 총지배인은 "부안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 대명리조트 변산 임직원 인재양성 참여

### 나누미근농장학재단 후원회원 가입

대명리조트 변산(총지배인 정병원) 전 직원들이 부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후원 가입해 귀감이 되고 있다.

변산 대명 김권수 팀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대명리조트 변산 전 직원 105명이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이사장 김중규) 정기후원 하고 군에서 추진 중인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장학기금 3백여원 확보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에 보탬이 되고자 후원회원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정병원 총지배인은 "부안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명리조트 변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중규 이사장은 "변산 대명리조트 직원들의 부안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안군 발전을 위한 열정이 군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져 더욱 빛이 나는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정신의 일환으로 매년 독거노인 10명에게 12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대명리조트 변산 임직원들은 환경정화활동, 연탄배달 봉사활동, 김장 나눔행사, 집수리 봉사활동, 관내 학교 장학금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